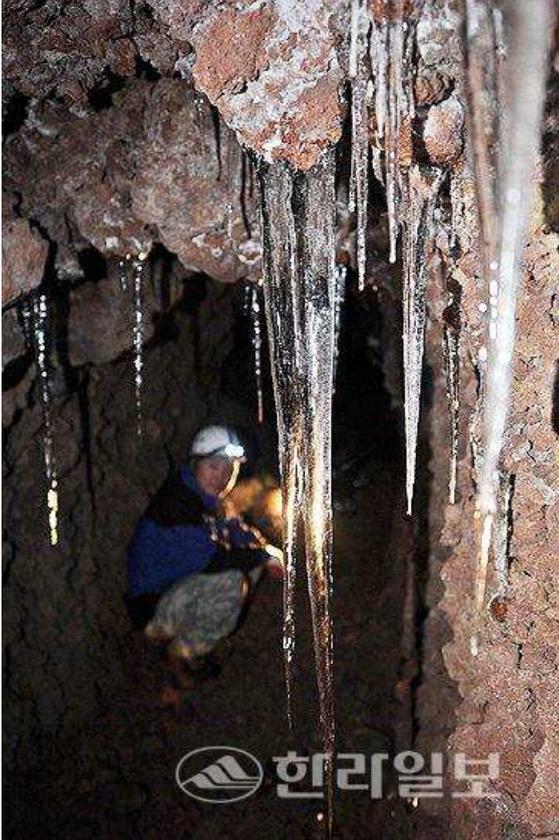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94)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4
108여단 주둔지 사전조사

입력 : 2008. 02.21. 00:00:00

아픈 역사현장... 갯도내부는 은빛 세상



겨울 동안에도 탐사는 계속됐다. 탐사를 시작한 2005년부터 벌써 세 번째 보내는 겨울이다. 한겨울에서 한발 비켜섰음에도 2월 중순의 산중은 아직 칼바람 세상이다. 겨울풍경은 일본군들이 오름의 속살을 헤집고 만든 갯도진지 내부에서도 만날 수 있다. 갯도진지 내부에서 느끼는 겨울은 역사의 무게와 오버랩 되면서 아픔과 슬픔이 교차된다.

취재팀은 지난 14일과 16일 제주시 거문오름 및 주변 부대오름 일대를 찾았다. 이 일대는 1945년에 작성된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에 제108여단사령부 및 예하 병력 주둔지로 표시돼 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 당시 일본군의 주요 주둔지였던 것이다.

이번 탐사는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 관련 군사시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이뤄졌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지난 2003년

▲고드름이 용암동굴에 종유석처럼 매달린 모습.

12월 본보 한라대맥 탐사팀이, 2005년 12월에는 일제전적지 특별취재팀과 한·일 전문가 공동으로 진행된 바 있다. 거문오름은 한라대맥 탐사단의 집중 조명 이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지난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로까지 이어지는데 핵심지역으로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일대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에 당시 일본군의 중요한 전략거점이었다는 사실은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제주 동부지역은 미군과의 유격전을 위한 게릴라전의 무대로 곳곳에 진지가 구축됐다. 일본군 108여단 6천여명의 병력이 거문오름·부대오름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일대에 주둔해 있었다.



▲부대오름 일본군 갱도천장에 고드름이 무수히 달려있다.

이번 탐사에서는 취재팀의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갱도진지를 4곳 찾아냈다. 추운 날씨 속에 맞닥뜨린 오름사면의 갱도진지들은 한겨울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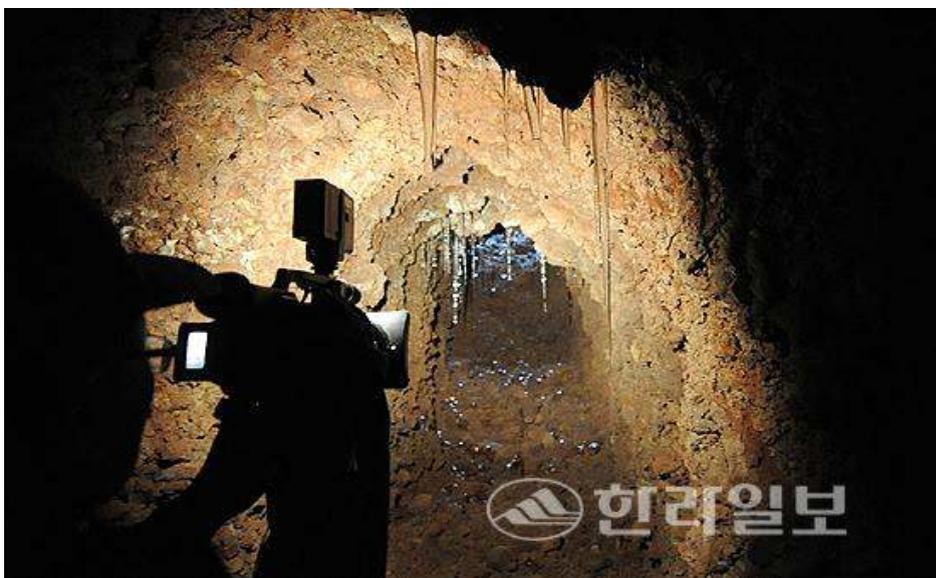
부대오름에서 새로 발견한 갱도진지 내부는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은빛 고드름으로 가득차다. 길이가 1m 이상 되는 것을 비롯 그 모습이 마치 용암동굴 내부의 종유석을 연상시킨다. 고드름은 랜턴불빛에 반사돼 투명유리처럼 반짝였다. 갱도바닥에는 부풀어 오른 얼음이 동굴내부의 석순이 자라는 것과 흡사하다. 크고 작은 얼음종유석과 석순 등등.... 마치 용암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갱도진지 내부에서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갱도 바닥과 천장에 는 수없이 많은 '얼음꽃'이 보석처럼 박혀있다. 어두컴컴한 갱도 내부에 얼음이 빚어낸 다양한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석순처럼 갯도바닥에 피어난 얼음꽃.

일본군이 제주섬을 최후의 전장터로 삼기 위해 만든 갯도진지는 역사의 아픔과 비극을 뒤로 한 채 이처럼 황홀한 겨울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문오름에서는 분화구 안쪽 8부 능선 지점에서 갯도진지 2곳이 새롭게 발견됐다. 길이는 각각 60여m, 50여m로 정상부를 향해 파들어갔다. 분화구 내부 알오름에 구축된 갯도진지 내부에서는 갯목을 세우거나 연결시킬 때 사용됐던 꺾쇠가 10여개 발견됐다.



▲조명을 받아 황홀한 분위기를 주는 갯도내부.

이번 탐사에서도 알 수 있듯 거문오름 및 주변 일대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특히 질곡의 제주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공간의 하나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조사와 다각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거문오름에서 새로 발견한 갯도진지 입구.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